

『김군을 찾아서』

강상우 지음, 후마니타스, 2020

이진룡(Lee, Jinryong)*

내게 5.18 민주화운동은 특별하다. 그 날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니지만 대학원 시절 우연히 맡게 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5.18 담론을 분석한 학위논문,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록관리 사업까지. 나의 20대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함께했다. 이후로는 기억에서 서서히 흐려져 갔는데 서평 제의가 들어왔다. 마치 서랍 속에서 추억의 물건을 찾아낸 것과 같은 반가움과 동시에 ‘그 일’을 망각한 채 살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 교차해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5.18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때의 책임감으로 서평을 쓰게 되었다.

“제 기억에서 사라져 버리면 그 기억 속에 존재하는 삶도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발굴했을 때는 세상이 저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습니까. 가장 큰 부분은 더 이상 잊히지 않게끔 기억해야 되는 ... 기억하게끔 해주는 것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최진수’씨의 인터뷰 중(252쪽)

『김군을 찾아서』는 5.18 민주화운동 사진 속 인물을 찾는 ‘추적 다큐멘터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록연구소(ryong@kihf.or.kr).

리' 영화 『김군』의 제작 과정과 구술자들의 증언을 한데 모아 놓은 책이다. 당시의 생존자, 목격자 등 103명의 목소리를 토대로 '김군'의 행방을 찾는 과정이 구술 기록과 함께 담겨져 있다.

책의 저자인 강상우 감독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2015년 5월로 거슬러 간다. 당시는 보수논객 지만원 씨가 5.18 당시의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인 '광수'라고 주장하던 때였다. 그가 언급한 600여 명의 '광수'들은 본인이라 주장하는 광주 시민들에 의해 대부분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제1번 광수'만큼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감독이 당시 시민군들을 도왔던 주옥씨로부터 '제1광수'가 우리 동네 '김군'이라 언급한 것을 듣게 된 순간, 그는 가장 유명한 무명인 '김군'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다.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목차를 통해 '김군'의 추적 과정을 차례로 보여준다. 먼저 감독은 페퍼포그에 탄 '김군'이 찍힌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구술자들과 함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며 〈사진을 분석〉한다. 그리고 그날의 〈생존자들〉로부터 5.18 당시 기억 속 첫 번째 '김군' 후보가 〈닝마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어서 나타난 두 번째 '김군' 후보는 더욱 신빙성을 갖고 있지만, 〈5월 24일〉 이후 사망했을 것이라 추측한다. 감독은 이와 같이 '시민군'이었던 사람들 한명 한명의 기억을 토대로 실마리를 이어가며 '김군'을 찾아나간다.

감독은 연출 초반,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말 그대로 '김군'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김군'이 사라진 이유가 당시의 비극적 사건 때문일 것이라는 증언이 계속되자, 계엄군으로부터 자신과 우리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군들의 삶을 조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된다. 구술자들 중 일부는 당시 상황이 트라우마로 남기도 했고, 일부는 끊임없이 5.18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한 오랜 피로함이 짙어져 그날을 지워버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증언할 수 있는 시민군이 더 이상 그날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충격적인 증언들을 앞에 두고 감독은 이제 한 명의 '김군'만이 아닌 광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전체 ‘김군’의 삶을 조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구술자들을 통해 우리가 미처 몰랐던 5.18 당시에 처절했던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 감독은 이 세상의 ‘김군’들을 기억하기 시작하였다.

이 책은 5.18 민주화운동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한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정보 대신, 당시를 생생하게 경험했던 시민군들의 목소리로 5.18을 재조명했다. 감독은 그들의 시선으로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보라고 했다. 사실 그래왔듯 기록은 승리자, 그리고 가해자의 편에서 기억되고 남겨진다. 우리는 그러한 단편적 정보만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의 거대담론을 형성했던 계엄군에 의해 기록된 그 날의 광주에는, 소수담론이었던 시민군의 처절한 상황이 없다. 광주의 5월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는 소수담론인 시민군들의 기록 역시도 중요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야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일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을 알기 위해 당시의 군사기록과 같은 정보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편향된 기록을 가지고 보수단체가 지속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심지어 기록물을 왜곡하면서까지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자신의 담론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록물의 활용,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은 존중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록을 왜곡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화한다면,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행히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계엄군 개입을 사과하는 진전이 있었지만, 이미 선동당한 사람들의 왜곡된 주장을 뒤집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나치의 선동가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을 기억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시민군들의 다양한 증언이 귀중한 증거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키비스트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년이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지 10년을 맞는다. 유네스코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를 수습한 공공기관까지 모두가 당시의 기록을 독자적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많은 아키비스트들이 알고 있듯이 다양한 관점에서 기록을 평가하고 보존하여, 기록에 입체적인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의 기준만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날의 기억되지 않았던 소중한 시민군들의 작은 목소리 또한 귀 기울이는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공정한 토대 위에서, 마침내 5.18 민주화운동이 온전한 기록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본다.